매일 INDEX

3면
완주 외국인 근로자 처우 논의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윤 6월 18일) 제379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첫 삽'

옛 종합경기장 부지서
안전기원 · 착공식 개최
180억 투입 2028년 완공

지난 8일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고 있다.

과거 전주의 영광을 재현하고 새로운 물결속에 미래 창조적인 희망의 바람이 힘차게 불고 있다.

전주시가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첫 삽을 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MICE복합단지의 핵심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시설, 숙박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180억원을 투입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12만 1,231㎡)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지별 건축공사 건립을 위해 1단계 부지 조성(내부 도로 및 주차장, 수당문 등 구조물 철거)이 먼저 진행된다.

이후 전시컨벤션센터와 한국 문화원형 체험전시관·미술관, 호텔 및 백화점 등의 건립 시기에 따라 2단계 기반시설 설치(도로, 주차장, 녹지 등)가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1단계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우선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활용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G-타운과 전주시립미술관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호텔의 경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롯데쇼핑(주)이 투자보조금 관련 협약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판매시설인 백화점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향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시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난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또 사업 시기 단축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타운에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구장 철거에 이어 올해는 60여년 역사 동안 전주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추억 속에 남겨두고 지난달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전주종합경기장은 수십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해온 도시의 심장이었고, 이제는 전주MICE복합단지를 통해 강한 경제 전주의 새 심장으로 다시 뛰게 될 것이다"며 "이 사업이 앞으로 고용창출과 산업 성장,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안전 공사 선언, 착공 퍼포먼스(시삽),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전북생생장터, 온라인 대표 플랫폼 '우뚝'

회원 · 매출 등 모두 ↑
민선 8기 성과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전북생생장터'가 민선 8기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전국 단위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 확산에 발맞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넓히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강화한 결과다.

전북생생장터는 회원 수, 입점업체 수, 매출 등 핵심 지표에서 모두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2022년 78억원이던 연매출은 2024년 452억원으로 5.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회원 수는 1만 8,000여명에서 3만2,000여명으로 81% 늘었다. 입점업체 수도 259개에서 481개로 증가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도는 2025년을 '제2의 도약기'로 삼고, △회원 수 5만명 △입점업체 550개 △연매출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회원 확보, 입점 확대, 매출 증대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한편, 6월 말 기준 전북생생장터는 회원 수 4만7,247명, 입점업체 500개, 매출 279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 대비 56%를 달성한 상태다. /이만호 기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100주년, 전주서 다시 뜨거워진다

전북자치도, 손기정 기념재단과 하계올림픽 유치 협약

지난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획득 89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36년 금메달 100주년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손기정기념재단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체육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재단은 마라톤 대회, 체육인 포상,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운영 등 다양한 기념·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상징적 콘텐츠 공동 개발, 주요 인사 대상 지지 활동,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100주년인 2036년을 기념하는 상징 콘텐츠는 전주 올림픽 유치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

행사에 앞서 손기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손기정 동상 앞에서 헌화 행사와 기념 촬영이 열렸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여론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가축 폭염 피해 예방 긴급예산 지원

행안부 특교세 9억 등 총 25억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6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 총 25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냉방팬,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등 냉방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예산은 농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에 쓰인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상 이르게 폭염이 시작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572농가에서 총 27만 6천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돼지, 닭, 오리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도는 폭염 취약 축종을 사육하는 324개 농가를 사전 점검하고, 음수나 사료에 섞어 급여할 수 있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완화제는 가축의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폐사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도는 9월 30일까지 '축산분야 폭염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농가에 적정 사육밀도 조절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